

“사이코패스라는 반응 재밌었어요”

“시청자 댓글을 보니 서한숙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드디어 사이코패스를 해보는구나, 재밌었어요. (웃음)”

최근 종영한 JTBC 수목드라마 ‘공작도시’에서 대한민국 정·재계를 쥐고 흔드는 성진가(家)의 실세 서한숙 역을 맡은 배우 김미숙(63)을 최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서한숙은 사람의 가치를 오로지 ‘쓸모’로 판단하는 인물로,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김미숙은 이 인물을 좀처럼 속을 알 수 없는 표정과 말투와 특유의 차분함으로 표현해냈다.

그는 “서한숙은 보고 자란 그대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사는 것 같다”면서 “가진 자의 힘을 알고 있고, 믿을 수 있는 건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간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면서 “그러나 그 여자의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다. 권력과 재산으로 평범한 행복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진 자의 승리로 끝난 결말에 대해서는 “현실이 참 무서운 것 같다”면서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생쥐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판도가 바뀌는 일은 현실에서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미숙은 권력을 향한 인간들의 욕망과 갈등을 그려낸 ‘공작도시’에서 차분한 카리스마로 극의 무게중심을 잡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연기를 하면서는 ‘이렇게 전지전능한 여자가 어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웃음) 모든 건 서한숙이 계획한 그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중요하지 않는 여자라고 설정하고 연기를 했죠.”

그런 만큼 시청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김미숙이 아닌 서한숙으로 거론되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저를 김미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만큼 몰입해서 연기했고 시청자가 공감해줬구나. 묘한 희열을 느꼈죠. 아쉬움이 남지 않게 연기한 것 같아요.”

극 중 서한숙과 평평한 갈등을 만들어내며 극에 긴장감을 한층 불어넣었던 며느리 윤재희 역을 맡은 수애에 대해서는 “감정의 몰입도가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칭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캐릭터에 너무 몰입해서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했다.

1979년 KBS 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미숙은 43년간 꾸준한 연기 생활을 해왔다. 전성기 이후에도 영화 ‘말아톤’과 ‘세븐데이즈’, 드라마 ‘전란한 유산’, ‘육중화’,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등 안방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동했다.

그는 “배우라는 직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 직업에 인생을 전부 건 것도 아니었다. 서두르지도 않고 긴장을 늦추지도 않은 채 늘 꾸준히 노력했던 것 같다”고 연기 인생을 돌아봤다.

“어렸을 때는 배우라고 하면 그냥 브라운관 스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되고 나니 연기자는 스타가 아니야. 현실 속 하나의 직업일 뿐이에요.”

최근 종영 ‘공작도시’ 서한숙 역 배우 김미숙

1979년 데뷔... 연기 인생 43년 차

“뒤라스의 사랑 이야기 연기해보고파”

21살에 (KBS 공채로) 데뷔해서 출근부에 도장 찍고 월급 받고, 출근해서 책상 뒤고 재떨이를 치우면서 느꼈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연기지,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나한테 재밌고 즐거운 작품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배우로서 더는 욕심은 없어요.”

차기작으로 tvN 새 드라마 ‘작은 아씨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김미숙은 “내가 안 해봤던 걸 도전해보고 싶다”면서 영화 ‘연인’ (1992)을 언급했다. 이 영화는 프랑스의 작가 겸 감독 마르그리트 뒤라스가 38세 연하 연인과의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풀어낸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40살쯤 차이나는 남자와 할머니의 지고지순한 러브스토리가든요. 정신적 사랑은 이런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죠. 70살이 되기 전에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5년 안에 섭외가 온다면 도전해보야죠. (웃음)”

/연합뉴스



송강호 주연 영화 ‘거미집’ 임수정·오정세·전여빈·정수정 합류

다음달 촬영 시작

송강호 주연 영화 ‘거미집’이 임수정, 오정세 등 다른 배우 캐스팅을 확정하고 다음 달 촬영을 시작한다고 투자사 바른손이 최근 밝혔다.

신연식 감독이 각본을 쓴 ‘거미집’은 애초 신 감독이 직접 연출할 예정이었으나, 김지운 감독이 새로 각색해 연출하게 됐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촬영을 마친 영화 ‘거미집’의 결말을 다시 찍으면 더 좋아질 거라는 압박에 빠진 김 감독이 검열 당국의 방해와 제작자의 반대,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의 비협조 등 악조건 속에서 촬영을 감행하며 벌어지는 일을 담는다.

송강호가 기필코 결자를 만들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김 감독을 연기한다. ‘조용한 기적’, ‘반칙왕’,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밀정’에 이어 김지운 감독과 5번째 만남이다.



영화 ‘거미집’에 출연하는 배우 송강호(왼쪽부터)·임수정·오정세·전여빈.



‘장화, 홍련’으로 김지운 감독과 함께 했던 임수정이 영화 속 영화 ‘거미집’에서 남자 주인공의 아내 역을 맡은 베테랑 배우 이민자를 연기한다.

오정세가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바람둥이 유부남 배우 강호세 역을, 전여빈이 제작사의 재정 담



당인 일본 유학과 신미도 역을, 정수정이 인기가 급상승 중인 신예 배우 한유림 역을 맡았다.

‘거미집’은 김지운 감독과 송강호가 참여한 새로운 제작사 앤솔로지 스튜디오의 창립작으로, 신 감독의 루스이소노도가 공동제작으로 참여한 다.

/연합뉴스

장기하 ‘공중부양’ 솔로 출발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을 이끈 싱어송라이터 장기하(사진)가 솔로로 나선다.

14일 소속사 두루두루 아티스트컴퍼니에 따르면 장기하는 이날 22일 오후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솔로 데뷔 음반인 ‘공중부양’을 발표했다.

2018년 ‘장기하와 얼굴들’ 활동을 종료한 지 약 3년 만이다.

장기하는 이날 싱글 ‘2022년 2월 22일’을 공개하며 활동 시작을 알렸다.

앨범에 앞서 공개된 이 곡에서 장기하는 ‘너 이제 음악도 그만했는데 / 이제 뭐 할 거냐 / 그래서 내가 그랬지 / 나 은퇴한 거 아냐’라고 노래하며 음반 발매 소식을 전했다.

/연합뉴스

TV조선 새 예능

‘국가가 부른다’ 17일 첫방

국민가수 10명 출연 노래대결

TV조선은 새 예능 ‘국가가 부른다’가 오는 17일 첫 방송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가 부른다’는 ‘내일은 국민가수’ (이하 ‘국민가수’)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국민가수’ 출연진 10명이 매주 노래 대결을 통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음악 예능이다.

박창근, 김동현, 이슬로몬, 박장현, 이병찬, 손진욱, 조연호, 김희석, 김영흥, 하동연이 출연하며, ‘국민가수’에서 심사를 맡았던 백지영, 케이월, 신지도 함께한다. 김성주와 봄이 공동 MC를 맡는다.

17일 밤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